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과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모델을 확정하여 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I.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중들에게 질문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지으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흙에서 온 아담이 첫 사람이라면,

두번째 사람은 당연히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이브나,

아담의 장자인 카인이 두번째 사람이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둘째 사람은 이브나 카인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첫 사람 아담에게서 흠에 속한 사람이 시작된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육적 사람이 시작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서 영적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육에 속한 옛 사람이 시작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서 영에 속한 새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는

육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Ephes. 4:22

That ye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conversation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4: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KJV)

4:23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NIV)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사람을 입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첫사람은 쓰레기처럼 던져 버리고, 예수님의 둘째 사람으로 입게 하기 위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의 시조인 마지막 아담 둘 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 Cor 5: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첫째 사람 아담에게서 땅에 속한 사람이 시작된 것처럼,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오신 그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둘째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울렸습니다.

II. 다음은 첫 사람과 둘 째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기원이 흙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째 사람은 흙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왔습니다.

둘째 사람은 따에 오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 어떤 모양으로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요한복음 1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에서 ‘태초’ 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창조 전의 태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존재의 양태는 2000 년전 신인으로 오셨을 때의 그런 모습, 육체를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bosom, **품안**¹⁾) 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¹. Bosom 이 신약에서 쓰인 용례는 눅 16:22, 요 16:23 을 참조

요한복음 1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John 1:18 (KJV)

¹⁸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독생하신’ 이란 말은 헬라어 게네스, genes 로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말합니다.

(성자의 영원한 발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용어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성육신, Incarnation 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을 Begotten Son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begotten Son 을 이 땅위에 보내셨습니다.

이 분은 구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둘째 사람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둘째 사람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III. 그러면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은 무엇인가요?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둘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사람이 보여 주신 모델을 따라 살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하면 땅에 속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은혜에 온 몸이 잠겨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성일위(二性一位, Hypostatic union)의 삶입니다. Hypostatic union 의 삶입니다.

이성(二性, Two Nature)은 신성(Deity)과 인성(Humanity)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일위(一位, One Person)는 하나의 위격,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이성일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본성인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성일위의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인격인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이 두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인격이 신성의 인격에 완전히 굴복하여,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람의 삶의 모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둘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것,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

둘째 사람이 보여 준 삶의 모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중생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성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늘 나라를 우리의 삶속에서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성이 신성에 거역을 하며 얼마나 불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적 손해를 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성일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둘째 사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성일위의 삶을 살아라.

인성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해라.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둘째 사람은 하늘의 복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행복한 삶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속에 이룬 사람의 고백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다. 나의 인성은 성령께 완전히 굴복했다.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바울의 행복한 삶은 둘째 사람의 모델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신성에 인성이 굴복하므로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므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찾아 헤매던 그 것!

수많은 종교가를 찾아 헤매던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찾았습니다.

IV.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 다시 고후 5:17 을 읽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한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혁명과 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대통령을 위시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과거의 모든 질서는 정지되고, 모든 권한을 혁명 위원회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런 혁명과도 같습니다.

정신혁명과 같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구시대적 모든 정신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정지되었다.

이제부터는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옛사람, 육적 사고 방식,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이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과거의 첫째 아담이 물려준 육적 소산은 다 버리고,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을 따라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흠에 속한 자는 저 흠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터 땅을 바라보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본질, 양태, 모든 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는 struggle 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엿 것으로 온 정신, 마음, 생활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1 :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국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토록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희생도, 여러 분의 모든 봉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성일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곤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둘 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인성이 신성에 온전히 굴복한 이성일위의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글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